

동물원 옹호 논의에 대한 비판적 재고*

김 성 한

주제분류 윤리학, 응용윤리

주요어 감금, 고통, 권리, 동물, 동물원, 자유

요약문

실험용 동물이나 식용 동물의 삶과 비교해 보았을 때 동물원 동물들은 상대적으로 훨씬 나은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희소성을 갖추고 있으며, 대체로 가격이 비쌀 뿐만 아니라 동물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관람의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관리자들이 동물들의 건강과 목숨 유지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인다. 실제로 동물원 관계자들은 대부분 동물원의 동물을 실험용, 식용 동물처럼 대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실험이라는 목적을 위해 동물원 동물을 죽여서 실험해 보지 않으며, 동물들을 돌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이처럼 실험용, 식용 동물들과는 달리 동물원의 동물들은 이런저런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으며, 때문에 동물원은 별다른 도덕적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레건(T. Regan)을 포함한 동물원 반대론자들은 동물들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동물원에 반대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들은 동물원을 옹호하는 논변인 (1)교육에 기여한다, (2)과학연구에 기여한다, (3)희귀동물 보전에 기여한다, (4)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논변이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이러한 논의를 둘러싼 찬반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 본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2011학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1. 들어가는 말

최근 국내에서도 동물들에 대한 관심이 점차적으로 증대되어 가고 있다. 물론 모든 동물들이 그와 같은 관심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 달라지긴 했어도 식용 동물이나 실험용 동물들의 처우 문제는 아직까지도 많은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마스크를 포함해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관심과 노력에 힘입어 최소한 애완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2~30년 전과 현격하게 달라졌으며, 이에 따라 과거에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되었던 애완동물에 대한 부당한 처우 방식들이 지금은 동물 학대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다. 그렇다면 동물원 동물들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어떠한가? 동물원 동물들은 대체로 동물원이 아니면 직접 보기 힘든 희귀한 동물들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다른 동물들과 달리 동물원의 동물들은 과거에나 지금에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편이다. 그럼에도 70년대 들어서 동물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이래, 식용 동물이나 실험용 동물 뿐만 아니라 동물원의 동물들에 대한 처우 방식 또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사람들은 동물원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맞서 동물원 옹호론자들은 (1)교육적인 목적, (2)과학적 연구, (3)멸종위기의 동물 보존, (4)즐거움 등을 거론하면서 동물원을 정당화하고자 한다.¹⁾

동물원 옹호론자들의 이러한 주장들은 적절한가? 이 글은 동물원의 장점으로 제시되고 있는 이상의 논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필자는 동물원 옹호론자들의 네 가지 주장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지만 동물에

1) 논문에서 동물원 옹호 논변으로 제시되고 있는 주장들은 흔히 언급되고 있는 것들이다. 이에 대해서는 D. Jamieson, "Against Zoos" in P. Singer ed., *In Defense of Animals : the Second Wave*, Blackwell Pub., Malden, MA, 2006, 134쪽; M. Rolands, 『동물의 역습』, 윤영삼 역, 달팽이, 서울, 2004, 271쪽; 김진석, 『동물의 권리와 복지』, 건국대학교출판사, 서울, 2005, 136쪽 등을 볼 것.

대한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사람들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면 동물원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동물원 옹호 논변과 이에 대한 검토

1) 동물원이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검토

동물원이 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동물원에서 동물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은 별다른 설득력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사람들이 동물을 직접 봄으로써 얻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긴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실제 동물을 보면서 그 동물의 이름을 파악한다든가 동물들의 외형적인 모습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동물원 관계자들의 친절한 설명을 듣고서 동물들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진정한 의미에서의 동물에 대한 교육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²⁾

어느 정도 개선이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경우 동물원 동물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에게서 사람들은 왜곡된 지식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동물들이 동물원에서 보여주는 행동은 야생에서의 습성이 아니다. 협소한 장소에서 사육되는 동물들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기 일쑤이며, 사람들은 그와 같은 행동을 통해 동물의 습성을 잘못 파악하게 될 수 있다. 대부분의 관람객들은 동물원을 일회성으로 방문하지 특정 동물을 즐긴 후 주시하면서 습성을 관찰하지 않는다. 설령 그와 같은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동물의 행동은 말 그대로 동물원 내에서의 행동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동물 행동 연구자가 아니라면 그들의 행동을 통해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동물원이 교육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다소 역설적인 방식일 것이다. 좁은 우리에 수감된 동물들은 자연

2) D. Jamieson, "Against Zoos" in P. Singer ed., *In Defense of Animals : the Second Wave*, 135쪽.

상태에서 보여주었던 여러 행동들을 나타내지 않을 것인데, 이는 동물들이 감금 생활을 얼마나 힘들어하는가를 보여주고, 그러한 생활을 계속 지속시켜서는 안 되며, 그들의 자연 서식지 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을 동물원이 제공하는 교육 효과라고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³⁾

적지 않은 경우 동물들은 동물원에 수용되기 전부터, 그리고 수용되고 나서도 줄곧 고통을 겪는다. 일차적으로 동물들은 포획 과정에서 고통을 경험한다. 동물들은 포획되면서 가족과 생이별을 맛보게 되며, 수송 과정에서 공포와 충격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고통의 과정을 거치고 난후 동물들은 많은 경우 좁은 우리에 갇혀 평생을 지내게 된다. 이는 동물들에게 지속적인 고통과 스트레스를 야기하며, 그들은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그 징후를 보여주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반복되는 동일한 행동은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전형적인 신호다.⁴⁾

동물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더욱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그림책이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등은 동물들에 대한 상세한 이해에 도움을 주며, 이를 통해 우리는 동물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훨씬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하루 동물원에 들러 특정 동물을 스쳐 지나가면서 보는 경우와 긴 시간, 심지어 몇 년에 걸쳐 특정 동물을 매일같이 관찰하며 제작한 다큐멘터리를 보는 경우 중에서 어느 쪽이 그 동물을 더욱 잘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동물원이 주는 교육 효과는 미미하고, 설령 효과가 있다고 해도 동물들에게 고통을 야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교육

3) 물론 적절한 환경과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면 이러한 비판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4) 이는 틀에 박힌 행위(stereotypical behavior)로 알려져 있다. 좁은 우리 안에 갇혀 있는 사자나 곰 등을 보면 끊임없이 우리의 방책 좌우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는 틀에 박힌 행위로, 전형적인 스트레스 징후다. P. Singer, 『동물해방』, 김성한 역, 인간사랑, 경기도, 1999, 227쪽.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기도 하다. 이렇게 보았을 때 동물원, 특히 동물들이 살아가기에 불편한 동물원을 다른 이유가 아닌 교육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긴 힘들 것처럼 보인다.

2) 과학적 연구를 위해 동물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검토

지금까지 우리는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통해 동물원을 정당화하기 힘들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과학적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검토해 보자. 롤랜즈(M. Rolands)에 따르면 동물에 대한 과학적 연구에는 서식지 동물 연구와 감금된 동물 연구가 있으며, 감금된 동물 연구에는 습성 연구와 해부학 및 생리학 연구 등이 있을 수 있다.⁵⁾ 후자에 다른 연구들이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이들 두 분야만을 논의해 보도록 하자.

먼저 동물원에서 동물들의 습성을 연구할 수 있는가? 언뜻 보기에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하긴 어려울 것이다. 무엇보다도 동물원의 환경은 자연 환경과 현격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동물들의 습성을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원래 살고 있는 자연 서식지에서의 모습을 관찰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장 연구는 실험자가 원하는 실험을 직접 조작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 실험자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원하는 방식으로 조작을 하지 못하고, 그저 방관자의 입장에 머물면서 일어나는 상황을 수동적으로 관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레이첼즈(J. Rachels)가 밝히고 있듯이 “대부분의 현장 동물행동학자들은 사건들과 상황들의 수동적 관찰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상황을 조작하는 데에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 그들은 동물들의 행동들에 관한 대안적 가설들을 확증하거나 부정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그들의 자료는 자신들의 눈앞에서 흘러가는 일에 대한 보고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체계를 갖추게 되며, 경쟁 해석이 이루어질 여지를 남긴다.”⁶⁾ 그런데 동물원에서의 일부 연구는 서식지 연구의 이와 같

5) M. Rolands, 『동물의 역습』, 276쪽.

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동물원에서는 야생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통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실험자들이 생각해 낸 가설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동물원의 환경이 열악하다면 이러한 확인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없으며,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는 오직 동물들이 살아가는 동물원의 환경이 야생을 최대한 모사한 경우에 국한될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실험자들은 현지 조사와 동물원에서의 조사를 비교 검토할 수 있는데, 이는 둘 중의 하나만으로 이루어지는 연구에 비해 심층적인 지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동물원에서의 일부 연구는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동물들의 습성에 대한 연구를 보완해 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생리학과 해부학적 연구는 어떠한가? 우선 우리는 이러한 연구가 왜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질문해 볼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연구가 단순히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긍정적인 평가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이나 동물에게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이러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장점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중에서 인간에게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별다른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그 이유는 첫째, 동물원 동물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아니라도 인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실험은 동물원이 아닌 실험실에서 이미 무수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인간을 위해 동물원 동물들마저도 실험 대상으로 삼아야 할 이유는 없는 듯하다. 둘째, 동물원 동물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를 신뢰하기엔 표본이 턱없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의약품을 인간에게 사용하려 할 경우 이에 앞서 무수한 임상 실험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적절한 실험 자료로 활용하기에 부족한 동물원 동물들에 대한 실험 결과를 인간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현실 속에서 인간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 동물원 동물들을

6) J. Rachels, *Created from Animals*, Oxford Univ. Press, New York, 1990, 174쪽.

대상으로 실험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듯하다. 동물원 동물들은 역설적이지만 보호의 대상이다. 이에 따라 동물원 동물에 대한 실험은 극히 제한적이면서 까다로운 여러 제약 조건하에서 이루어지며, 아무리 심한 경우에도 동물원의 동물들이 실험실 동물처럼 다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대개 동물원 동물들은 실험실 동물처럼 단순 실험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만약 해부의 대상이 되거나 생리 검사의 대상이 된다면 이는 대체로 동물원 동물들의 건강상의 이유 때문일 것이다.

이번에는 과학적 연구가 동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고려해 보자. 이는 인간에게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비해 다소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이는 크게 동물원의 동물 자체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주장과 야생의 동일 종(種) 동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주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동물원 동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은 동물원에 동물을 수용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다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을 수용소에 강제로 가두어 놓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연구를 진행한다고 할 경우 이를 정당하다고 말할 수 없다. 강제 수용 자체가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사람들이 어떤 시설에 수용됨으로써 자유를 잃긴 하지만 먹을거리나 적으로부터의 보호 등 생존에 필요한 여건이 보장되고, 그 자체로 관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경우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다음으로 과학 연구가 동일 종 동물 일반에게 도움이 되며, 이에 따라 동물원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주장을 검토해 보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공리주의자들일 것이다. 그들에 따르면 동물들이 동물원 생활로 인해, 그리고 일부 연구로 인해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야생에서 생활하는 동일 종의 동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면 그러한 연구는 허용될 수 있다. 반면 아무리 많은 긍정적인 결과가 산출된다고 해도 동물원 동물들이 이를 능가할 정도의 고통을 느낀다면 그러한 연구는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런데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동물원 동물들이 연구의 대상이 됨으로써 겪게 되는

고통의 양은 그러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야기될 수 있는 고통의 총량에 비할 바가 아닐 정도로 적을 것이다. 그러한 연구는 동일 종 일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인간을 포함한 다른 종에게까지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보았을 때 과학적 연구를 통해 동일 종 일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동물원을 정당화하는 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동일 종 동물 일반을 위해 이루어지는 동물원에서의 연구는 야생동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통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동물원의 동물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야생동물을 포획해서 실험하는 경우보다 동물들에게 스트레스를 덜 주게 될 것이다. 동물원의 동물들은 인간과 빈번하게 접촉을 하며, 이에 따라 일부 연구를 수행할 때에도 인간과의 접촉이 익숙하지 않은 야생동물에 비해 스트레스를 덜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유로 “많은 종류의 연구는 자연에서보다 동물원과 수족관에서 더욱 인도적으로 수행”⁷⁾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장점을 인정한다고 해도 우리는 동물원에서 살아가고 있는 몇 마리의 동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 결과를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부터 나온 결과를 신뢰하기엔 표본의 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

동물원 동물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빈도가 현저하게 부족한 것은 분명 사실이고, 때문에 연구 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대체할 수 있는 별다른 대안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연구는 시행될 수밖에 없을지 모른다. 야생동물을 사로잡아 연구를 하는 것은 동물원의 동물들을 활용하는 경우보다 더욱 많은 고통이 초래된다. 설령 그와 같은 연구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연구 결과는 신뢰성을 확보하

7) M. Hutchins, B. Dresser, and C. Wemmer, "Ethical Considerations in Zoos and Aquarium Research" in S. Armstrong & R. Botzler ed., *The Animal Ethics Reader*, Routledge, New York, 2003, 463쪽.

기엔 크게 부족할 것이다. 그렇다고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동물들을 일일이 잡아서 통계 처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자면 동일 종의 동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연구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할 수 있다는 이와 같은 생각은 어떤 경우 인간에게서도 정당화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 국가와 민족의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전장에 나간 군인들이 칭송을 받는 경우는 그 예인데, 이처럼 대의를 위한 개인의 희생은 일반적으로 도덕적인 가치를 인정받는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속해 있는 종의 존속이나 번영 등에 기여할 경우 동물원의 동물들의 희생 또한 정당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와 같은 비교는 적절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참전 용사들은 ‘자발적으로’ 참전을 결정함에 반해 동물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동물들은 심지어 자신이 동일 종의 다른 동물들을 위해 희생한다는 의미마저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이런 측면에서 동물의 희생과 참전 용사의 희생은 분명 차이가 있다 할 것이다.

하지만 ‘자발성’이 동물과 인간의 희생을 가르는 확고한 기준이 될 수는 없는 듯하다. 그 이유는 전사들의 희생을 철저하게 국가와 민족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동기에 대한 과도한 긍정적인 평가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사들은 비자발적인, 다양한 동기로 참전을 결정할 수 있다.⁸⁾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자발성’이 개입되었는지를 기준으로 동일 종을 위해 동물들이 희생을 치르는 것이 참전 용사의 경우와 다르다고 말하긴 힘들 것이다. 더군다나 전장에 나가는 군인은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음에 반해, 동물들은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잃고, 실험으로 인해 간혹 고통을 겪는 정도에 머문다. 대신 그들은 이를

8) D. Lindburg, "Zoos and the Rights of Animals" in *The Animal Ethics Reader*, 477쪽.

대가로 적어도 먹을거리 등을 포함한 생존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어떤 측면에서는 동물들의 희생이 전사들에 비해 가볍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적절한가? 이에 대해서도 여전히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설령 동물들이 동물원에서 목숨을 유지한다고 해도, 그들은 평생 자유를 잃는 희생을 치르게 된다. 이에 반해 전사들은 전쟁 중에 목숨을 보존할 경우 전쟁이 끝난 후 자유로운 몸이 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과연 동물 쪽의 희생이 크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지는 분명치 않다.

그런데 이상의 논의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와 무관하게, 과학적 연구를 위해 동물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한 편이다. 왜냐하면 설령 동물 연구가 필요하다고 해도 그것이 굳이 동물원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동물원보다 훨씬 편안하고 고통이 야기되지 않는 장소에서 간혹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마땅히 그러한 장소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동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동물원이 갖는 장점으로 내세우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한편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동물들이 일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권리론자들은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에 따르면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을 정당화하기 위해 무엇이 얼마만큼 동물에게 고통을 산출하는지를 따지는 것은 핵심을 놓치는 격이다. 그들은 고통 산출 여부를 떠나 동물을 동물원에 가둬 놓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아무리 긍정적인 효과가 산출된다고 해도 개별 인간이 타의에 의해 커다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 동일한 논리를 동물에게도 적용한다면 아무리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다고 해도 동물원에 동물을 가둬 놓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생각의 적절성을 멸종 위기의 동물 보존에 대한 권리론자들과 보존생물학자(conservation biologist)들 간의 논쟁을 통해 가늠해 보도록 하자.

3) 멸종 위기의 동물을 보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검토

멸종 위기의 동물 보존은 동물원 옹호론자들이 즐겨 제시하는 논변 중 하나다. 멸종 위기의 동물을 보존하고자 하는 노력은 특정 종의 존속과 유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만약 동물원이 실제로 이를 위해 기여할 수 있다면 동물원이 유지되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은 권리론자들이다. 권리론의 측면에서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레간(T. Regan)에 따르면 본래적인 가치(inherent value)를 갖는 존재들은 모두 일정한 권리를 갖는다. 이와 같은 권리는 자의식이 있고, 미래에 대한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삶의 주체(subjects-of-a-life)라면 어떤 존재라도 갖추고 있으며,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유용성과는 무관하게 주어진다.⁹⁾ 이러한 주장대로라면 어떤 경우에도 동물들은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면서 단순한 불거리로서의 생활을 영위해서는 안 된다. 마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하면서 개인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 되듯이, 설령 동물원이 많은 장점을 갖추고 있고, 커다란 이익을 제공한다고 해도 동물원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많은 동물들은 결코 양도되거나 바꿀 수 없는 본래적 가치를 갖기 때문이다.

권리론자들은 이러한 생각에 근거하여 멸종 위기의 동물을 동물원에 수용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 그들이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이유는 멸종을 거론하는 논의가 특정 개체보다는 종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인간 종의 존속과 번영을 위해 특정한 인간을 감금시키는 것은 공리주의 등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을지 몰라도 권리론적인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권리론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인간 종의 존속을 위해 특정한 인간을 희생시키는 것은 잘못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설령 종의 보존이라는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동물 개체가 감금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권리론의 입장에서는 본래적 가치를 갖춘 모든 개체들이 각각 일

9) T. Regan, "Are Zoos Morally Defensible?" in *The Animal Ethics Reader*, 455쪽.

정한 권리를 갖기 때문이다. 때문에 설령 동물들 간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해도 그러한 차이를 통해 차별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¹⁰⁾

희귀동물에 관한 권리론자의 생각에 대해서는 몇 가지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보존생물학자들의 반론에 초점을 맞춰 보도록 하자. 보존생물학자는 희귀동물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들의 보존을 도모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대체로 세 가지 근거를 들어 권리론자들의 입장을 비판하고 있다. 첫째, 보존생물학자에 따르면 레건처럼 권리론의 입장을 취할 경우 희귀동물을 특별히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가 힘들다. 물론 권리론자들이 희귀동물 보존 계획에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희귀동물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희귀동물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동물들이 본래적인 가치를 갖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인간에 적용되는 생각을 동물에게도 그대로 적용하는데, 마치 희귀 인종이건 그렇지 않은 인종이건 그들 각각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야 하듯이, 희귀동물이건 일반적인 동물이건 상관없이 그러한 동물들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 우리는 희귀종에 대한 특별한 처우를 정당화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권리론자들은 희귀종에 대한 실험을 일반 종에 대한 실험으로 대체하는 것을 종차별주의(speciesism)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동물 실험에 반대하는데,¹¹⁾ 이는 우리의 상식과 다소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 보존생물학자들은 레건이 말하듯이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 생물들이 살아가는 환경이나 동물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묻는다.¹²⁾ 물론 자연 서식지의 파괴로 인해 개체수가 줄어

10) 동물들의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처우를 달리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

11) M. Hutchins, B. Dresser, and C. Wemmer, "Ethical Considerations in Zoos and Aquarium Research" in *The Animal Ethics Reader*, 462쪽.

12) 이러한 입장에서 보스톡(S. Bostock)은 희귀동물의 멸종을 방지하기 위한 동물원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랍 오릭스의 멸종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들을 사로잡아 번식시켜 자연으로 돌려보낸 사례가 있었는데, 이 경우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보스톡은 심지어 레건

드는 것을 간과한 채 인간이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동물의 보존을 위해 힘쓴다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놓치는 격이다. 하지만 자연 서식지를 복원하거나 보호하는 데에 힘쓰는 것 못지않게 당장 중요한 것은 희귀동물의 개체 수 증가일 수 있다. 희귀동물이 멸종되어 버린다면 그 후에 자연 서식지에 관심을 두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굳이 개체의 권리와 종의 보존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보존생물학자들은 후자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때문에 그들은 희귀동물의 동물원 수용에 제한적으로 찬성한다. 다시 말해 설령 불편을 겪더라도 종의 보존에 도움이 된다면 희귀동물의 동물원 수용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은 어떤 경우 인간에게서도 정당화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인류가 멸종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관계를 맺지 않으려 할 때 강제를 동원해선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정당한지는 분명치 않다. 이와 같은 경우 개인의 권리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인류의 존속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보존생물학자들은 특정 윤리 이론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잘못이라 생각한다. 이에 따라 그들은 동물 세계에서도 종의 보존보다 개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권리론의 시각이 적절치 못하다고 말한다. 린드버그(D. Lindberg)에 따르면 어떤 한 가지의 근본적인 윤리 원리를 일관성 있게 모든 존재에 적용하려 할 경우 불가피하게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레건은 권리론을 인간의 세계뿐만 아니라 동물의 세계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적용 방식은 우리의 상식과 상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고양이가 집에서 키우는 새를 잡아 먹으려 하는 것은 막아야 하지만 야생 고양이가 먹이를 찾아다니는 것을 방해할 수는 없다”¹³⁾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생각하는 이유는 그러한 새

과 같이 동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마저도 이러한 경우를 허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S. Bostock, "Zoos and Zoological Parks" in Callahan, D. & Chadwick R. ed., *Encyclopedia of Applied Ethics Vol.4*, Academic Press, San Diego, 1997, 576쪽.

는 애완동물임에 반해 야생 고양이가 길에서 발견하는 먹이는 애완동물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권리론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생각은 잘못이다. 권리론의 입장을 일관성 있게 적용할 경우 애완동물이라는 것과 그러한 동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우의 차별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애완동물이 주인의 사랑을 받음에 반해 그렇지 않은 동물은 사랑받지 못한다는 근거를 들어 차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 이유는 어떤 동물이건 그러한 동물은 본래적 가치를 지닌 존재로, 인간에게 주는 긍정적인 효과와 무관하게 ‘동등한’ 처우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보자면 권리론의 입장에서는 고양이가 애완동물이 아닌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것도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그러한 동물들 또한 본래적 가치를 가진 존재로, 그러한 동물의 목숨 또한 매우 소중하기 때문이다. “죽음은 그것이 고통 없이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가장 커다란 해악을 야기한 것이다.”¹⁴⁾ 그렇다면 우리가 고양이를 쫓아다니며 어떤 동물도 잡아먹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가? 이 경우 굶주리다 자칫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는 고양이 목숨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될 수 있다. 또한 고양이가 동물들을 잡아먹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러한 동물 종의 개체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먹을거리가 부족하게 됨으로써 결국 고양이의 먹잇감이 되었던 동일 종의 많은 동물들이 목숨을 잃게 될 수 있다. 그런데 권리론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별다른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며, 설령 지침을 제공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식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 듯하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린드버그는 “가치를 정의하고 도덕적으로 적절한 반응을 형성하게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마주치는 상황의 맥락”¹⁵⁾이라고 말하면서 오직 한 가지 도덕

13) D. Lindburg, "Zoos and the Rights of Animals" in *The Animal Ethics Reader*, 476쪽.

14) T. Regan, "Are Zoos Morally Defensible?" in *The Animal Ethics Reader*, 454쪽.

15) D. Lindburg, "Zoos and the Rights of Animals" in *The Animal Ethics Reader*, 476쪽.

원리만을 활용하는 데에 반대하며, 상황에 따라 도덕적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그는 자연계에서는 집단이, 사육 동물에서는 개체가, 동물원에서는 집단과 개체가 모두 중요하다고 주장한다.¹⁶⁾ 바꾸어 말해 동물원에서 희귀동물을 정성 들여 사육하면서 보존을 도모하는 것이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린드버그의 생각은 우리의 상식에 부합된다. 그럼에도 린드버그의 생각은 또 다른 정당화가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물론 상식적인 옳고 그름을 정당화하는 것이 윤리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¹⁷⁾ 이에 따라 위에서의 린드버그의 주장을 논의의 궁극적인 출발점으로 삼을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처럼 상황에 따라 도덕적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경우 윤리적 상대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자칫 아예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마저도 인정해야 하는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¹⁸⁾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권리론자들의 입장에 대한 보존생물학자들의 비판은 대체로 상식에 부합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는 멸종 위기의 동물을 보존하고자 한다는 동물원 옹호 논변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희귀동물 보호라는 임무 수행을 위해 동물원보다는 나은 선택의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동물 종의 보존을 위해서는 동물원보다는 희귀동물 보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장소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 동물의 개체수를 늘리거나 그들을 자연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는 동물원보다는 사람들로 인한 스트레스가 없는, 한적하고도 넓은 공간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으며, 실제로 희귀동물 복원 프로젝트는 대체로 그러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동물원에서 인간의 시선과 손길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동물들은 야생에 가깝게 환경이 조성된 곳에서 사육되는

16) 같은 논문, 478쪽.

17) D. Brink, *Moral Realism and the Foundations of Ethics*, Cambridge Univ. Press, Cambridge, 1989, 37쪽.

18) J. Goodall, 『희망의 자연』, 김지선 역, 사이언스북스, 서울, 2010, 345쪽.

동물에 비해 자연으로 돌아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적절하다면 희귀동물 보호는 동물원이 아니면 확보할 수 없는 장점이라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이러한 논변을 동물원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할 수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한마디로 다른 더 나은 대안이 있기 때문이다.

4)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검토

앞에서 살펴본 동물원을 옹호하는 주장들은 다소 인위적이거나 부차적인 것처럼 느껴진다. 동물원이 존속되어야 하는 솔직한 생각을 물을 경우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동물원이 즐거움을 주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실제로 동물원을 방문함으로써 고통을 느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책이나 TV 등에서 보았던 동물들을 직접 봄으로써 즐거움을 느끼며, 이는 동물원이 존재하고 있는 솔직하고도 실질적인 이유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생각만으로는 동물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그러한 생각이 ‘인간’에게 주는 즐거움만을 고려하고 있을 뿐, 정작 사육되는 동물들에 대한 고민을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¹⁹⁾

그렇다면 동물원 동물들의 입장을 감안한다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될까? 여기에서는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동물들을 동물원에 수용할 수 없다는 생각을 롤랜즈(M. Rolands)의 입장을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하자. 롤랜즈는 동물의 처지를 윤리적인 측면에서 고찰하기 위해 롤즈(J. Rawls)의 무지의 베일 뒤에서 합리적인 윤리적 선택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다소 변경시켜 활용한다. 그는 우리가 동물로 태어날지 아니면 인간으로 태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공평무사하게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 동물을 함부로 처우하지 말자는 데에 합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²⁰⁾ 그는 이를 동물들의 처우에 대한 다양한 문제에 적용하고 있는데, 그는

19) C. Wemmer, "Opportunities Lost: Zoos and the Marsupial that Tried to be a Wolf" in *The Animal Ethics Reader*, 482쪽.

20) M. Rolands, 『동물의 역습』, 134쪽.

이를 동물원 동물들에 대한 처우를 고려할 때에도 활용하고 있다. “동물원의 문제를 따져보기 위한 공평한 자리에서는, 당신이 동물원을 구경하는 인간이 될지, 아니면 동물원에 감금된 동물이 될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해서 각각의 경우에 당신이 무엇을 얻게 되고 무엇을 잃게 되는지 가늠해 보아야 한다.”²¹⁾

우선 롤랜즈의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롤랜즈의 방법이 롤즈의 생각의 일부만을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이다. 언뜻 보기에 롤랜즈는 자신의 처지를 모르는 경우에 어떤 선택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롤즈와 다를 바 없다. 하지만 롤랜즈와 달리 롤즈는 이성적이면서 이기적인 사람들이 ‘원초적 입장’이라고 부르는 입장에서 상호적으로 받아들일 내용들이 정의의 원칙이라고 밝히고 있다. 롤즈의 이러한 입장은 “타인들이 어떤 사람의 이익을 기꺼이 존중해 주려하고, 그의 권리를 받아들여 할 경우에만 그 사람이 타인의 이익을 존중할 의무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²²⁾는 호혜적인 것으로, 정의의 원칙은 오직 이성적이면서 이기적인 사람들 사이에서만 적용된다. 이는 호혜적인 관계에 놓여 있지 않은 동물들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론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은 ‘도덕적 행위 능력이 있는 존재’와 ‘도덕적 배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존재’를 구분할 경우 어느 정도 해소될 수가 있다. 우리는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많은 인간들이 있음을 안다. 식물인간, 심각한 정신지체 장애인이나 치매 노인 등은 이러한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호혜적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을 도덕적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우리와 호혜적 관계에 놓여 있지 않다고 해도 동물들은 여전히 도덕적 배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만약 이것이 적절한 시

21) 같은 책, 268-9쪽.

22) J. Rachels, *Created from Animals*, 190쪽.

각이라면 설령 동물들이 인간과 호혜적인 관계에 놓여있지 않고, 또한 합리적이면서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롤랜즈의 방법을 활용하는 데에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²³⁾

논의를 위해 일단 무지의 베일 뒤에서 결정하는 방법이 적절한 것으로 전제하고, 이제 무지의 베일의 뒤에서 선택할 때 어떤 선택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자. 이를 위해 우선 인간이 동물원과 같은 곳에 갇혀 있는 경우를 상상해 보자. 많은 사람들은 인간을 특정 장소에 가두어 놓고 관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잘못이라 생각할 것이다. 설령 다소 넓은 장소를 제공한다고 해도 이는 마찬가지다.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그가 원하지 않음에도 그를 가두어 놓고 관람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아무리 공리를 증진한다고 해도 사람을 가두어 놓고 구경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처럼 인간을 가두어 놓고 관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잘못된 좀 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잘못이라 생각하는 커다란 이유 중의 하나는 정상적인 인간의 욕구, 무엇보다도 자아실현의 욕구가 그와 같은 감금 생활을 통해서서는 제대로 충족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감금을 당할 경우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준다고 해도 인간은 자아실현의 욕구의 좌절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 자아실현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다는 주장이 감금을 반대하는 이유라면 동물원은 비판을 벗어날 여지가 있다. 간단히 말해 동물들은 자아실현의 욕구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이 인간의 본질을 합리성으로 보고, 이를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자아실현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동물들은 자아실현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평균적인 인간은 다른 인간 아닌 동물이 갖추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사유 능력을 갖추고 있다. 반면 동물들은 사유 능력을 갖추고 있

23) 우리는 도덕적 권리를 오직 호혜적 관계에 놓인 사람들에게만 부여한다는 전제를 부정함으로써 롤랜즈의 방법론을 계속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C. Sunstein and M. Nussbaum, *Animal Rights: Current Debates and New Directions*, Oxford Univ. Press, New York, 2004, 285쪽을 볼 것.

지 않으며, 이에 따라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를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보았을 때 동물을 동물원에 가두어 놓는 경우와 인간을 일정 장소에 가두어 놓고 관람을 하는 것은 분명 다르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반론에 추가하여 동물원을 찬성하는 사람은 인간을 특정 장소에 수용하는 경우가 있음을 들어 동물원을 정당화하려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치매 노인을 복지 시설에 수용하는 경우는 도덕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일반적으로 치매 노인은 자아실현의 욕구를 갖지 못한 듯하며, 시설에 수용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만약 시설 종사자들이 적절한 처우를 해 줄 경우 그들은 본래적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고, 설령 일부 욕구들이 좌절될지라도 그러한 좌절은 다른 이유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정당화될 것이다. 예를 들어 가족들이 적절한 보호나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경우 설령 일부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해도 복지 시설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수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더욱 커다란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복지 시설과 동물원이 유사한가? 물론 동물원에 수용되어 있는 동물 중에서 치매 노인의 경우와 유사한 처지에 놓인 동물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사고로 상처를 입거나 어미로부터 버림받은 새끼, 동물원에서 태어나 야성을 잃어버린 동물들은 야생으로 돌려보냈을 경우 살아남기가 힘들 것이며, 이들을 동물원에 수용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듯하다. 하지만 야생에서 포획되어 동물원에 수용된 동물들은 사정이 다르다. 그들은 굳이 동물원이 보호해 주지 않아도 야생에서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며, 야생에서 충족할 수 있는 많은 욕구들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따분하게 보내게 될 것이다. 더군다나 동물원에 수감시키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동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것이다. 복지 시설과의 유사성에 대한 지적이 적절치 못한 것은 동물원과 달리 복지 시설은 치매 노인 당사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보호를 받아야 하며, 도움을 받지 않을 경우 더욱 커다란

문제가 발생한다. 설령 시설에 수용된다고 해도 그들은 욕구의 좌절을 크게 느끼지 않을 것이다. 요컨대 복지 시설은 시설이나 가족들에게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치매 노인 당사자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하지만 동물원은 이와 다르다. 동물원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사람을 본인이 원치 않음에도 시설 및 주변 사람들을 위해 강제로 수용한 것에 비할 수 있을 것이다. 야생동물은 야생에서 별다른 문제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스스로 바라지 않음에도 사로잡혀 동물원에서 생활을 하게 된 것이다. 동물원에 동물들을 수용하는 것은 동물들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설령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듯이, 동물원에 동물을 수용하는 것 또한 동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분명 문제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동물들이 감금됨으로써 잃게 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롤랜즈는 공평한 자리에서 판단할 경우 동물원의 동물들이 자유를 잃게 된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될 것이며, 이것이 동물들의 관심을 심각하게 침해하리라는 점을 지적한다. “공평한 자리에서 당신은 ‘동물을 동물원에 가두는 행위가 동물의 가장 절실한 관심 중 하나를 짓밟는 일임에 틀림없다’는 사실을 안다.”²⁴⁾ 롤랜즈는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처지를 바꾸어 놓고 생각할 경우 동물이 동물원에 수용되기 보다는 자유로운 삶을 선택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실제로 우리는 동물들이 자아실현의 욕구가 없다고 해도 동물원에 수용됨으로써 자유를 잃을 경우 그들이 적절한 처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설령 동물원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동물원의 동물들을 그 자체로 사랑한다고 해도 동물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잘못일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러한 롤랜즈의 결론이 다소 지나친 의인화일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자유는 롤즈가 정의의 제1원칙을 통해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

24) M. Rolands, 『동물의 역습』, 280쪽.

는 매우 소중한 가치이며, 동물들 또한 인간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살아가길 바란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동물들이 인간과 동일한 정도로 자유를 바란다고 말하긴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동물들이 동물원 내에서 보이는 모습은 야생에서와 다르다. 그리하여 예컨대 동물원에서는 동물들이 야생에서 보이는 자유로이 이동하는 모습 등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동물들이 왜 그렇게 줄곧 이동하는 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동물들이 이동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호기심을 충족시키면서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일 수가 있다. 만약 생존을 위한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을 경우 동물들은 이동을 하지 않고 그 영역 내에서 살아갈 것이다. 예컨대 누우나 얼룩말 등의 초식동물들이 계절에 따라 이동을 하는 이유는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함이다. 만약 먹을 것이 풍부하고, 개체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며, 포식자들의 위협이 크지 않을 경우 초식동물들은 이동을 하지 않고 일정한 장소에 계속 머물 것이다. 마찬가지로 육식동물 또한 잡아먹을 대상이 풍부할 경우 이동을 하지 않을 것인데, 이들은 먹을거리나 은신처 등이 포함되어 있는 자신의 지배권을 지키기 위해 돌아다니는 편이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자 하는 동일 종의 다른 개체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²⁵⁾ 그들은 이동 통로도 거의 일정한데, 그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들의 안전과 생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그들이 돌아다니는 지역은 동물원에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다. 하지만 그들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의 생존을 도모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먹을거리나 은신처 등을 계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그러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동물들은 자유로움 자체를 즐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생존과 번식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야생에서의 행동을

25) S. Bostock, "Zoos and Zoological Parks" in Callahan, D. & Chadwick R. ed., *Encyclopedia of Applied Ethics Vol.4*, 576쪽.

발달시켰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동물원이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준다면 동물원에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생각은 동물들이 야생의 상태에서 늘 생명의 위협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보았을 때 더욱 강화된다. 야생에서 포식동물들은 다른 동물을 잡아먹지 못하면 결국 굶어죽을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먹을거리가 되는 동물 또한 포식동물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항상 경계를 늦출 수 없다. 이외에도 야생에서 동물들은 급격한 날씨의 변화 등의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수 있으며, 병들었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김진석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동물원을 제한적으로 긍정하고 있다.

야생동물들은 자연 서식지에서 질병과 부상, 거친 날씨, 먹이의 부족, 그리고 포식자의 위협에 직면한다. 잘 관리되고 있는 동물원들은 지속적인 영양을 공급하고 거친 날씨, 포식자로부터 동물들을 보호해 주고 수의학적 보살핌을 제공한다. 동물원에서 동물들은 좀 더 오래 살 수 있을 것이고 고통을 일으키는 많은 원인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²⁶⁾

만약 동물원이 이와 같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면 설령 충족시켜야 할 일부 욕구들을 희생당하더라도 동물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동물원에 있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무지의 베일 뒤에서 구속되어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생존이 보장되는 경우와 자유가 주어지지만 언제 재난이 닥칠지 모르는 삶, 자식을 낳아도 9할 이상이 성체가 되기 전에 죽게 되고, 언제 어디에서 포식자가 생명을 위협할지 모르며, 포식자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경우 중에서 선택하라고 요구하면 선택 능력이 있는 인간들 중에서도 전자의 삶을 선택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우리는

26) 김진석, 『동물의 권리와 복지』, 140쪽.

무지의 배일 논의를 통해 동물들이 동물원을 선택할 가능성을 쉽게 배제해 버릴 수 없을지 모른다.²⁷⁾

여기서 분명히 해 두어야 할 것은 지금까지의 주장이 야생의 생활에 비해 동물원의 생활이 더 낫다는 생각을 함의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필자가 밝히고자 하는 것은 무지의 배일 논의를 통해 동물원에 반대하는 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정도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자유가 주어지지만 생존이 끊임없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무지의 배일 뒤에서 동물원을 선택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동물들이 동물원에 수용되면서 자유를 포함해 많은 것들을 잃는다는 롤랜즈의 지적은 일면 타당하다. 많은 경우 동물들은 동물원에서 야생에서 살아갈 경우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측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지나칠 정도로 단조로우면서 협소한 공간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하며, 익숙하지 않은 많은 관객들의 시선과 관심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러한 환경에서 동물들이 살아가는 경우를 마냥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음은 말할 것도 없다. 특히 동물들에 대한 고려는 사실상 배제된 채 동물을 사육하는 사람의 이익이나 입장만이 고려된 상황에서 사육이 이루어지는 환경, 예를 들어 “한 마리 또는 그 이상의 동물들을 우리에다 격리시켜 놓은 도로변의 서커스단 식의 동물원”²⁸⁾은 사라져야 마땅하다. 하지만 우리는 이와는 다른 환경과 시설을 갖추고 있는 동물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야생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을지라도 동물들이 넓은 공간에서, 야생을 최대한 모사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27) 한편 동물원에 반대하는 스티브스(H. Steeves)는 아무리 동물원 관계자들이 병을 치료해 주고, 먹을거리를 충분히 제공해 주며, 그리하여 동물들이 야생에서보다 오래 살게 된다고 해도 동물원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노동계급의 인간’으로 ‘동물원의 동물’을 대체해서 고려해 보면 명백하게 사태를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체가 과연 적절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스티브스의 주장은 H. Steeves, *Animal Others: On Ethics, Ontology, and Animal Lif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Albany, N.Y., 1999, 142쪽을 볼 것.

28) 김진석, 『동물의 권리와 복지』, 135쪽.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환경은 관람객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야생을 흉내 내는 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동물들이 원래 살고 있던 곳과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할 것이다.²⁹⁾ 만약 이와 같은 곳에 동물들을 수용하고, 관람객들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다면, 그리고 동물들이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스트레스나 고통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면 별다른 잘못을 범하지 않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음에도 수용되어 있는 감옥에 동물원을 비유하는 것은 지나치게 부정적인 평가라 할 것이다.

3. 결 론

지금까지 우리는 동물원을 옹호하는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동물원을 옹호하는 논변이 설득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것이 동물원이 아니면 확보될 수 없는 장점이어야 할 것이다. 거꾸로 말해 다른 대안이 있고, 그러한 대안이 더욱 나은 선택이라면 이를 선택해야 한다는 말이다. 교육, 실험, 희귀동물 보존이라는 주장은 다른 대안, 그것도 더욱 나은 대안이 있다는 점에서 별다른 설득력이 없다. 이에 반해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서라는 주장은 그나마 솔직하게 느껴지며, 논의해 볼 여지가 있다. 이러한 주장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동물원 동물들이 비교적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보았을 때, 동물들의 자연적 본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매우 협소한 공간에 수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³⁰⁾ 반면 인간에게 즐거움을 제공하면서,

29) 미국에서는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동물원과 수족관을 인증해 주는 AZA(Association of Zoos and Aquarium)이라는 비영리 기관이 있으며, 이러한 기관이 동물원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하며 동물원 동물들의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기관을 포함한 많은 동물 애호가들의 노력에 힘입어 미국의 일부 동물원은 아프리카의 사파리와 같은 모습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S. Clifford, *Animal Rights: a Reference Handbook*, ABC-CLIO, Santa Barbara, Calif., 2009, 70-71쪽.

30) 동물들이 어떠한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지는 동물들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동물원 관계자들은 개별 동물들의 특징을 적절히 파악해야

다른 한편으로 동물들이 비교적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서 장점으로 거론되는 다른 특징들을 갖출 수 있다면 동물원은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동물들을 우리에게 가두어 놓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굳이 필요하다면 동물원은 위에서 언급했던 장점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며, 특히 동물들이 느끼게 될 스트레스 요인들을 최대한 제거하여 동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숙명여자대학교)

한다. 어떤 동물들은 비교적 협소하고 단조로운 환경 속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동물들에 대한 동물원 수용은 동물원에 대한 비판을 상당 부분 벗어난다. 반면 상당수의 포유류들은 동일한 상황 속에서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대형 고양이과 동물이나 늑대 등은 좁은 우리에 갇힐 경우 매우 의기소침해지는데, 이러한 동물들을 좁은 우리에 수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R. Hursthouse, *Ethics, Humans and Other Animals : an Introduction with Readings*, Routledge, New York, 2000, 217쪽을 볼 것.

참고문헌

- 김진석, 『동물의 권리와 복지』, 건국대학교출판사, 서울, 2005.
- Goodall, J., 『희망의 자연』, 김지선 역, 사이언스북스, 서울, 2010.
- Rolands, M., 『동물의 역습』, 윤영삼 역, 달팽이, 서울, 2004.
- Singer, P., 『동물해방』, 김성한 역, 인간사랑, 경기도, 1999.
- Bostock, S., "Zoos and Zoological Parks" in Callahan, D. & Chadwick R. ed., *Encyclopedia of Applied Ethics Vol.4*, Academic Press, San Diego, 1997.
- Brink, D., *Moral Realism and the Foundations of Ethics*, Cambridge Univ. Press, Cambridge, 1989.
- Clifford, S., *Animal Rights: a Reference Handbook*, ABC-CLIO, Santa Barbara, Calif., 2009.
- Hursthouse, R., *Ethics, Humans and Other Animals : an Introduction with Readings*, Routledge, New York, 2000.
- Hutchins, M., Dresser, B. and Wemmer. C., "Ethical Considerations in Zoos and Aquarium Research" in Armstrong S. & Botzler, R. ed., *The Animal Ethics Reader*, Routledge, New York, 2003.
- Jamieson, D., "Against Zoos" in Singer P. ed., *In Defense of Animals : the Second Wave*, Blackwell Pub., Malden, MA, 2006.
- Lindburg, D., "Zoos and the Rights of Animals" in S. Armstrong & R. Botzler ed., *The Animal Ethics Reader*, Routledge, New York, 2003.
- Rachels, J., *Created from Animals*, Oxford Univ. Press, New York, 1990.
- Regan, T., "Are Zoos Morally Defensible?" in S. Armstrong & R. Botzler ed., *The Animal Ethics Reader*, Routledge, New York, 2003.
- Steeves, H., *Animal Others: On Ethics, Ontology, and Animal Lif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Albany, New York, 1999.

- Sunstein, C. and Nussbaum, M., *Animal Rights: Current Debates and New Directions*, Oxford Univ. Press, New York, 2004.
- Wemmer, C., "Opportunities Lost: Zoos and the Marsupial that Tried to be a Wolf" in Armstrong S. & Botzler R. ed., *The Animal Ethics Reader*, Routledge, New York, 2003.

The Argument in Defense of Zoos:

A Critical Reconsideration

Kim, Sung-Han

Compared to animals used in laboratories for tests and animals reared for food, zoo animals appear to lead a better life and are better regarded. Zoo animals are treated well because they are rare specimens, and a concerted effort is made by zookeepers in ensuring their continued well-being for zoo visitors. Indeed, zookeepers do not treat the animals in the same way scientists might treat laboratory animals or farmers might treat animals reared for food. Zookeepers do not think of slaughtering an animal for human consumption, nor do they indiscriminately use the animals for experiments. Instead, zookeepers are dedicated to caring for the animals to the best of their abilities. As animals in zoos unlike laboratory animals or those reared for food are able to lead peaceful and long lives there appears to be little moral or ethical objections to keeping animals in zoos. However, there are some individuals who strongly object to the existence of zoos. Anti-zoo campaigners, such as T. Regan, are opposed to zoos because they claim zoos violate the autonomy of the animals. This argument is unconvincing vis-à-vis those who claim zoos have much to contribute to society in that: (1)they enable scientists and private individuals alike to observe animals at a close range, (2)they aid scientific research in animal behavior and biology, (3)they ensure the conservation of endangered animal species, (4)they provide the public with a means of viewing the different creatures they would not otherwise see. Due to the existence of disparate views for and against zoos, this paper seeks

to critically review and analyze the pros and cons of zoos.

Key Words: animal, confinement, freedom, pain, right, zoo

김성한 e-mail: kishan1209@hanmail.net

투 고 일	2011년 05월 04일
심 사 일	2011년 05월 09일
게재확정	2011년 05월 18일